2006년 9월 21일 (목)	국회의원 유필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 연간 2만 명 이상
보상금액 2백 6십억에 달해
- 뺑소니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입법 추진 -

1. 뺑소니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 (자료: 경찰청, 건설교통부)

구 분	발생 건수	검거		피해상황(명)			보상금액 (백만원)	비고
		건수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2001	19,367	16,600	85.7	27,121	549	26,572	27,136	
2002	18,555	16,126	86.9	26,570	508	26,062	24,828	
2003	18,440	14,428	78.2	27,507	472	27,035	28,566	
2004	16,346	12,153	74.3	24,462	387	24,075	26,420	
2005	14,653	10,744	73.3	22,719	370	22,349	26,188	
2006.6	6,112	4,520	74.0	9,634	153	9,481	12,758	

- 현행 뺑소니 수사는 목격자와 차량 유류품이 없을 경우 사실상 검거가 어려움.
-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비율(3.4%)을 징수하여 조성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2. 뺑소니 방지 장치

- 특허청에서 검색한 결과, 뺑소니 관련 특허 출원은 1백여건이 넘었음.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법인 출원 특허도 상당수임.
- 이번에 다수의 발명품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자, 상기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인들에 문의한 결과, 도면상으로만 존재할 뿐, 시제품이 준비되어 있거나, 연구 중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음.
-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실험 대상이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발명품임.

3. 실험 대상

- MBC의 [TV특종! 놀라운 세상]에 방영.
- 특허청 특허 등록 (특허번호 제0381737호, 특허권자 윤용길)
- 도면 및 설명 (특허출원원부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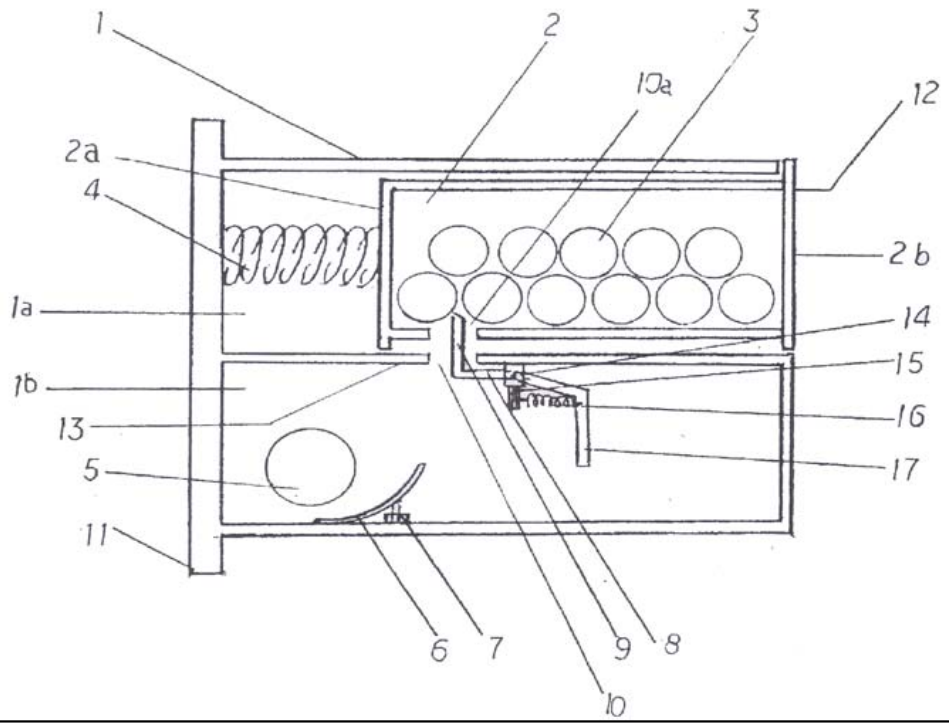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1

차체에 고정할 고정부(11)가 돌출되고 그 고정부에 좌단이 고정되어 그 내부가 상하단(1a)(1b)으로 되면서 그 상단(1a)의 우측면은 개방부(12)가 형성되고 그 내부 중간 격판(13) 의 중앙에는 안전핀 걸림공(10)이 형성된 4각형 본체(1)내의 하단내측 바닥에는 높이 조절 수직 너트(7)에 의해서 높이가 조절되도록 지지되는 호형 판스프링(6) 위에 일정 충격 이상의 충돌에 의해서 상기 스프링(6)을 탄력적으로 이탈하도록된 타격볼(5)이 장착되고 상기 중간 격판(13)의 중앙 일정 위치에는 하향 돌출부(15)의 링크핀(14)에 중앙이 유동되게 축착된 ㄱ + ㄴ 자형 발사대(8)가 그 하단(17)은 탄지 스프링(16)에 의해 탄지되고 상단의 돌출 안전핀(9)은 상기 중간 격판(13)의 안전핀 걸림공(10)을 관통하여 상단으로 돌출되게 장착되고 상기 본체(1) 상단내에는, 좌측면(2a)에 강력 탄지 스프링(4)이 수평방향으로 부착되고 우측면(2b)은 폐쇄되어 있으며 전후측면(17a,17b)은 개방되며 상하면(17c)(17d)은 폐쇄되되 그 하면(17d)에는 상기 안전핀 걸림공(10)에 상응하게 안전핀 걸림공(10a)이 형성되어 발사대의 상부 돌출 안전핀(9)에걸려 고정되고 그 내부에는 차체 번호를 표시한 차량 번호볼(3)을 다수개 내장한 볼 박스(2)가 장착된 것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하는 차량 뺑소니 방지 장치.

도면

도면1



4. 본 실험의 의의

- 차량 사고 발생 시 현장에 다수의 증거물을 비산시켜, 결과적으로 뺑소니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기 장치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함.

5. 향후 진행 방향

- 뺑소니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 현재 법안 초안 완료
- 뺑소니 방지장치에 대한 각종 기준 설정
- 산업화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 뺑소니 방지장치처럼, 운전자나 제조회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보행자 및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많은 발명품들은 입법적 절차를 통한 의무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를 요함.

MBC NEWS 내가 만들어 가는 MBC Internet News
www.imnews.com

기사프린트

뺑소니 막는다

● 앵커 : 뺑소니 교통사고는 목격자가 없으면 범행차량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뺑소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고현장에 반드시 증거가 남도록 차량에 특수장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가 43kg짜리 마네킹을 치는 실험입니다.

충돌 순간 차량 전면 부착된 작은 통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안에 있던 조그마한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구슬에는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있어 만약 뺑소니를 칠 경우 운전자가 현장을 완벽히 수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고 차량의 흔적을 사후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수장치는 현재 여러 형태로 개발이 진행중이며 특허만 9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아예 모든 차량에 이 같은 인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 그것이 어떤 장치든지간에 뺑소니를 방지하는 장치는 차량에 부착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기자 : 하지만 모든 차량에 특수장치를 달도록 할 경우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등의 적지 않은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만 4600건이나 발생한 뺑소니 사고.

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에서의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 yslim@imbc.com] 2006.09.21

Copyright(c) Since 1996,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